

건강 칼럼

다낭성난소증후군의 한방치료

최근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무월경, 불임, 난임을 치료하고자 한의원에 내원하는 여성들을 자주 보게 된다.

다낭성 난소증후군(polycystic ovary syndrome, PCOS)이란 기임기 여성에게 월경불규칙, 무월경 등을 유발하여 불임, 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내분비질환의 하나이다. 보통 남성호르몬(안드로겐) 과다와 함께 다모증, 여드름, 비만 등이 함께 나타나거나 경우가 많고, 성인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대사질환 및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6-10%가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인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최근 5년 사이에 약 4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내당능 장애,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심혈



성기원

경희대학교한의원 원장

관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대사 증후군'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아마도 현대 여성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식습관의 변화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바쁜 직장생활로 인한 식사 불규칙과 폭식 경향, 변비 등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위장관 팽만과 자율신경 압박, 자궁기능의 실조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수독(水毒)과 습담(濕痰), 신허

(腎虛), 골반강내 어혈(瘀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제내경에는 "월경이 오지 않는 것은 자궁으로의 혈액의 순환이 막혀서이며, 자궁의 혈액은 심장에서 내려와 연결되는데, 만일 氣가 역상하여 肺부위로 치받아 心氣가 아래로 통하지 못하면 월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수독과 습담은, 주로 비만한 여성 또는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 여성에게 해당된다.

식습관 불균형과 운동부족, 체내 대사기능의 저하로 인해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이 과도하게 쌓여 순환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어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의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신하는, 만성 허약자에서 나타내며, 즉 허약부의 난소의 호르몬 분비기능 저하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골반강내의 어혈, 즉 혈액순환의 저하와 울체를 조래하여 자궁기능의 실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본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유발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인체내 대사를 활성화하고 수독 및 습담, 골반강 내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난소의 혈류상태를 개선하고 혈류유입을 증가시켜 체질개선, 비만치료를 통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한다.

한방 치료를 통해 자궁의 기능이 자연회복되어 월경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임신에 성공하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사설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반드시 성공해야

전북도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어 주목이 된다. 도지사와 각 실국장, 그리고 일자리 정책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세운 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17개 과제 대상을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책'도 그렇고, '창년내일자리 채용공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그렇다. 전북도는 이번 협업토론회를 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려선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경제 브레인들과 논의한 사안들은 모두 중요한 것들이다.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때, 전북도는 그것을 각성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불면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과 반비례하여 관청은 일자리는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말한 바 전북형 일자

리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8만개 창출 방침에 따라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 쪽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했다가는 서울을 비롯해 거주 인구가 많은 다른 광역시도들의 등쌀에 밀려 일자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민들이 전북도에 게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관청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본보는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날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이 그저 그렇다면 전북도는 보다 더 분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취직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같은 말은 우리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된다. 도내 젊은이들 상당수가 이 지역을 떠나 살고 싶다는 말과 반비례하여 관청은 일자리를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말한 바 전북형 일자

독자제언

112허위·장난신고 안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신고112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국민 없이 112를 누르면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고통을 치러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해 전국 112상황실에 접수된 긴급신고는 약 1,911만 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112 긴급신고가 늘면서 허위 신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총 8천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들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14년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장난 신고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고창경찰서 순경 최혜진

독자제언

데이트폭력에 적극 신고 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및 여성보복 폭력 등 성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학대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날 19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보호에 발 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첫걸음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24~10.31)'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정신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범죄행위이다.

과거에는 사랑싸움이라는 인식 아래 연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해도 개인 간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일 뉴스에서 데이트 폭력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행위로 여성들의 분노와 무서움이 점점 크게 자리잡고 있어 사회적 약자 전부를 아우르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무주경찰서에서도 이 기간동안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 추진기간을 지정, 수사과를 중심으로 추진분부를 구성하고 각 가능별 역량을 모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 △데이트폭력 침해사범 전담팀을 만들어 데이트 폭력 등에 강력 대응 △관공지 주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홍보활동 △여성단체 등 데이트폭력 피해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00일 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함을 당부한다.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정진만

제몫 찾기로 미래 비전을 말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행보가 있어야겠다. 도내 고위 공직자들이 현 시세를 파부로 느끼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불만이 있는데 결코 틀린 지적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소유한 재산과 일반 시민들이 소유한 재산의 평균치를 비교해보니 고위공직자들의 것이 일반 시민의 거의 여섯 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도내 고위공직자들은 최근에 몇몇 도의원들이 보여준 못된 행태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정신태도가 비정상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따로 놀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도지사가 저번에 했던 말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제몫을 찾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거 말이다. 그러면 그 제몫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도민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재량권을 이용해 뒷문을 켜기는 몇몇 도의원들의 작태는 결코 제몫 찾기가 아니다. 그것은 과묵한 범죄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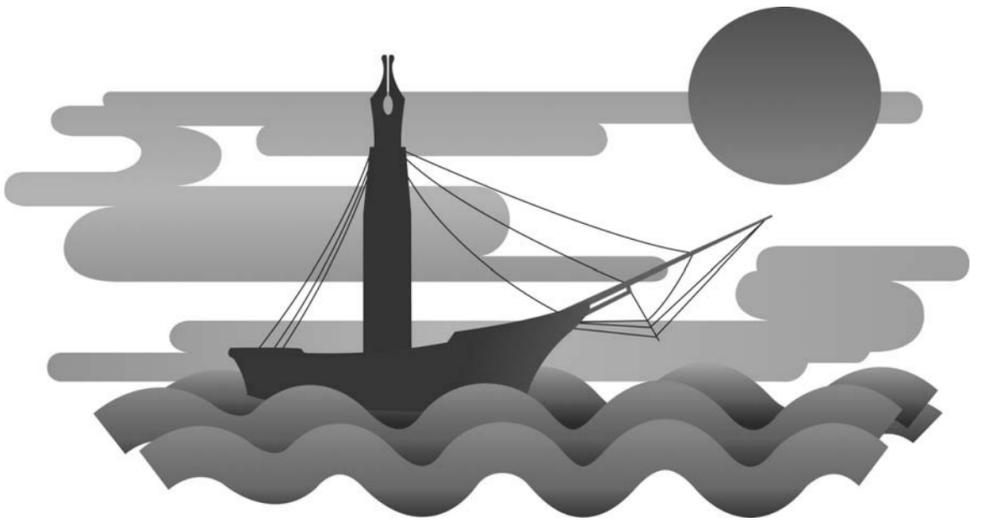
전북의 제몫 찾기를 말하면서 몇몇 도의원들을 꾸짖는 까닭에 논점의 방향이 잠시 비켜 가기는 했지만 도민들이 바라는 제몫 찾기의 방향은 분명하다.도지사의 그때 발언 그대로 도내 국책사업들의 추진이 속도감을 내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보여준 사업 방식의 행태며 추진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음을 도지사는 분명하게 밝혔는데 전북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반드시 제 몫을 쟁겨야 한다. 제몫을 제대로 움켜쥐는 게 미래 비전에 힘을 실는 거라는 걸 말이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인치 않다고 했거니와 그 내용면면들이 미미하다.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가 지꾸 줄고 있는 이유를 짚어야겠다. 모든 도민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니와 전북도는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다른 광역 시도의 단체장과 브레인들이 자기 지역 발전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